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우리의 착각

메리 앤 폴리(CND)

“미지의 세계와의 약혼” – 정말 아름다운 문구로, 설레는 인생 모험을 시작하고 싶은 갈망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요즘 리더십에서 봉사하면서, 미지의 세계와 나의 관계는 종종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중매결혼처럼 느껴진다.

이 문구를 접하면서, 나는 오래 전 아이들을 가르치던 첫 해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보니, 마치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선생인 양 기대감에 차 나를 바라보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모습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나 또한 지금의 그들처럼 책상에 앉아 있던 사람에 불과했다. 그럼 내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까!

몇 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날 한 학생이 내가 숙제로 내준 수학 문제 중에서 하나를 풀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수학 문제를 보았을 때 처음엔 나도 풀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침착함(극히 부족하지만)을 최대한 동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풀어온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다행히도 총명한 한 여학생이 문제를 풀어왔고, 그 학생이 설명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마비되었던 멘탈이 풀리면서 난처한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점에서 여전히 그런 느낌이다. 리더십 팀이 앞으로 우리 회원들의 의료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첫 논의를 시작했을 때, 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은 물론 조사와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그렇게만 한다면 남은 것은 이를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확신했다. 당연히 상황은 그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았고, 그 이유가 단지 팬데믹이 발생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황과 필요한 바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계획도 거듭 바뀌어야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도 내가 더 많은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필요해 보이는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들과 함께, 때로는 타인들을 위해 선택해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다. 이러한 유래 없는 변화의 시기,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공기마저도 불안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속한 수도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염려하는 여러 수도권 회원들도 해당된다. 리더십에서 봉사하는 우리는 회원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 좀 더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여전히 답을 갖고 있는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엇 때문에 배우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다시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다. 가르침에서 오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것으로 릴케의 명언처럼 우리는 함께 “문제를 살아가기” 시작한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을 숙고하는 중에 2014년에 발표하고 후에 극장용 영화로까지 확장된 아주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실명에 관한 노트 Notes on Blindness* 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30여년 전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헐이 만든 오디오 사운드트랙 테이프를 기초로 활용한 이 영화는, 그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후 3년에 걸쳐 숙고한 바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그는 의심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으로 뒤덮이면서, 실명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 헐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 존 헐은 비 소리를 들으면서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겹겹이 들려오는 비 소리가 서로 다르고 독특하게-멈춤도 없이-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안에 비소리가 들어 있다.”

그 아름다움과 마주하면서, 그는 자신과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고립되고 차단되고 내면에만 사로잡혀 있는 대신, 갑자기 하나의 세상이 들어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세상이 말을 건넨 것이다.” 그 세상은-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그가 볼 수 있었을 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존 혈의 새로운 방식의 발견은,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면에서 그는 사도바오로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도행전 17 장의 주제를 들려준다고 본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그 하느님-그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은 모든 인간이 “더듬거리며” 자기의 하느님을 찾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분을 찾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문화는 꽤 다르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교육시켜왔고,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함으로써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은 이러한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될지를 “아는” 능력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우선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착각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착각을 지니지 않았다. 그들은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았기에 겸손과 희망은 지녔지만 확실성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았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식이란 1 세기 재닛 어스킨 스튜어트 (RSCJ)가 쓴 아름다운 시, “빛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의 2 절과 같이 우리가 초대받는 방식이다.

“하느님을 보고 맛들여라, 하느님을 듣고 느껴라, 희망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라. 어둠이 하느님을 가려버린 듯 보일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

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 그리고 겸손으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잡는 것이다. 존 혈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는 “실명에 관한 노트”를 기록한지 수십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비참하지만 궁극적으로 변모되는 3 년을 되돌아본다.¹ 자식들을 다시 보는 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면서, 처음으로 그는 헛된 갈망을 치워버린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보는 것 혹은 아는 것은 사랑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혹은 적어도 보지 않는 것 혹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더 가능하게, 더욱 순수하게,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지의 세계와 약혼하는 것”은, 처음에는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매결혼은 파트너가 선택한 “사랑의 결합”보다 오래 지속되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중매결혼이 가장 성공적이 되는 경우는 파트너가 전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할 때이며 이로써 다른 형태의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된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동일한 선택을 하도록 초대받는다.

메리 앤 수녀, 미국 노틀담 수녀회 관구장,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 거주.

¹ 피터 미들턴과 제임스 스피니, 다큐멘터리 *Notes on Blindness* 감독, www.nytimes.com/opdocs or YouTube, 2014